■ 이대통령 내일 '국민과의 대화'… 세종시 국면 전환될까

"어떤 질문도 안피한다" 정면 돌파

수정 대국민사과·유감 표명 수위 놓고 고심

野 "국민 저항 직면"… 정세균 오늘 나주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TV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히기로 함에 따라 세종시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여권 내부의 조율이 완벽하지 않은데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청와대 등 여권 핵심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정면 돌파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세종시 논란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정치권의 논란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진영과 충돌 등 여권 내부의 분란도 예상되나 별다른 '우회로'가 없다는 점도 이번 프로젝트를 강행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 표명 여부와 그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적절한 수위의 사과를 통한 진정성 확보가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일단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뒤 진정성을 이해해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고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을 쓰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솔하게 유감 또는 사과의 뜻을 밝히고 수정 추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진솔한 설명'은 모두(冒頭) 발언을 빌려서 하는 방안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정면 돌파 카드에 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와 변명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 약속을 당선 후에 지켜야지 어설프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것은 국민의 저항만 야기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을 보니 일방 홍보를 통해 자신들 주장을 주입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대표는 26일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 대표의 이번 방문은 '영산강 살리기'를 둘러싼 지역 민심을 놓고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심대평 "신당 창당 실무작업 착수"

자유선진당 출신인 무소속 심대평 의원은 25일 신당 창당과 관련, "실무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창당은 연말연시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실무작업 내용과 관련해선 "국민중심당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추진하고 있다"며 "창당주비위원회의 경우 꼭 만들어서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기인대회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창당시기에 대해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선 2월까지는 창당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충남 공주·연기가 지역구인 심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원안수정 방침에 대해 "원안이든, 원안 플러스 알파이든 정부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면 법을 바꿔야 하겠지만, 그 일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법까지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盧 "난 분배정부라고 몰매맞은 불행한 대통령"

두번째 유고집 발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주의 연구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남긴 육필 원고와 참모진에게 구술한 육성기록을 담은 노 전 대통령의 두번째 유고집 '진보의 미래'가 발간됐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이 25일 출간한 이 책은 1부에서 '진보의 미래'원고,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소득불균형에 대하여' 등 육필원고를 그대로 실었으며, 2부에서는 집필을 위해 모인 참모진과 학자들에게 책의 구성과 줄거리를 비롯해, 취지, 기본적인 개념 등에 대해 구술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책에서 "언론과 대중적 분위기의 눈치를 살피려고 세금이나 깎아줬다"며 "나는 분배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분배 정부라고 몰매만 맞았던 불행한 대통령이었다"고 회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의원(오른쪽)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0일을 맞이해 2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고인의 묘역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랫동안 못만났던 친구 만난것 같다"

DJ 추모기도회 상도동계 핵심 참석 화합 연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0일을 맞아 추모기도회가 2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고인의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부인 이희호 여사와 차남 김홍업 전 의원을 비롯한 유가족들 및 전직 비서진, 국민의 정부 각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문희상 국회부의장, 박지원 정책위의장, 송영길·박주선·김진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무소속 정동영 의원도 자리를 채웠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 상도동계 핵심인사들이 참석, 화합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부소장 등 상도동계 일행은 행사 전에 도착해 김홍업 전 의원, 한화갑 권노갑 김옥두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정 대표와 손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김홍업 전 의원은 김 부소장을 뒤늦게 보고 "온 지 미처 몰랐다. 올 줄 모르고 옷도 편하게 입고 왔다"며 환영했다. 이에 김 부소장은 "초청을 받고 참석하는 것이 도리여서 왔다"고 답했다.

김 부소장은 춘천에 칩거 중인 손 전 대표에게 "이제 내려오셔야죠.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하기도 했고 박 최고위원에게는 연락처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교동계의 대변인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아주 오랜만에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기쁨과 열정이 묻어났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추모기도회는 찬송가 제창과 성경구절 낭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20여분간 진행됐다.

이 여사는 식이 진행되는 내내 흐느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행사 후에는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DJ 장례식부터 불화설이 돌았던 박 정책위의장과 동교동계 인사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 떨어져 서 있었다. DJ 최측근인 박 의장은 26일 YS가 주재하는 상도동-동교동계 만찬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민주화 투쟁시절에 함께 열정을 불태웠던 분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박 의장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실력있는 학원은 합격자로 말한다!
=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합격자 =
2009년 편입 김영출신 합격자
일반편입 현재까지 5,849명
수학전형 현재까지 1,450명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교재 동일한 강좌 동일한 시스템
철저한 담임제도 1:1질의응답 일일출석점검
마무리도 전략이다! 막판 뒤집기! "김영" - www.kimyoung.co.kr
상위권대학 "FINAL 총정리" 12월, 1월 집중가자
D-40 합격완성
★기출문제는 물론, 예상문제를 통해 고난이도까지 정복한다.★
무료특강 시사독해 기초문법
개강 12월 1일
2010 편입영어 실전대비강좌
- 편입영어 문법정리, 어원학습,
- 독해 유형별 접근법학습
편입영어 이론+확장과정
대학편입을 가장 많이 시키는 곳!
김영 편입학원
광주광부경찰서 뒤 (062) 222-8088
실시간 문자상담 / 010-7766-1254

영/화/안/내
영화예매하기

메가박스

M관	2012 (12세) 최고급관
2관	백야행 (18세)
3관	청담보살 (15세)
4관	홍길동의 후예 (12세)
5관	홍길동의 후예 (12세)
6관	솔로이스트 (12세) / 백야행 (18세)
7관	닌자어쌔신 (18세)
8관	크리스마스캐롤 (전체)
9관	2012 (12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련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백야행 (18세)
2관	백야행 (18세) / 바람 (18세)
3관	홍길동의 후예 (12세)
4관	홍길동의 후예 (12세)
5관	청담보살 (15세)
6관	크리스마스캐롤 (전체)
7관	2012 (12세)
8관	2012 (12세)
9관	닌자어쌔신 (18세)
10관	2012 (12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 : www.joycbc.com/ 1588-7941
상무점 (상무병원과 아이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백야행 (18세)
2관	홍길동의 후예 (12세)
3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체)
4관	집행자 (18세)
5관	홍길동의 후예 (12세)
6관	청담보살 (15세)
7관	닌자어쌔신 (18세)
8관	닌자어쌔신 (18세)
9관	2012 (12세)
10관	2012 (12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전대후문 하미스포텍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2012 (12세)
2관	2012 (12세)
3관	홍길동의후예 (12세)
4관	청담보살 (15세)
5관	솔로이스트 (12세) 트와일라잇 (12세)
6관	백야행 (18세)
7관	닌자어쌔신 (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무니(오전5시~오후11시)

색깔있는 영화신책 • www.cinus.co.kr/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2012 (12세)
2관	2012 (12세)
3관	홍길동의후예 (12세)
4관	닌자어쌔신 (18세)
5관	백야행 (18세)
6관	청담보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원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홍정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